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미란



큰애가 고3였을 때, 아침 일곱 시까지 등교해야 했기 때문에, 승용차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다. 잠이 부족한 아이는 뒷좌석에 오르자마자 졸기 시작했지만, 나는 비몽사몽 간에라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걸 기대하며 라디오의 영어 회화 방송에 채널을 맞추곤 했다. 나중에는 아이가 시끄럽다고 신경질을 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볼륨을 낮추어 결국 운전석에 앉은 나만 그 방송을 듣고 다녔다.

부를 한단 말인가? 십 년이면 내 나이가 오십대 중반도 넘을 터였다. 시큰둥한 마음으로 볼륨을 다시 낮추는데, 이어진 진행자의 말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십 년이면 된다

“십 년이면 긴 세월이라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십 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시작하면, 십 년 후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죠.”

만, 너무 요원하게 보이거나 번거롭게 느껴질 때, 나는 이 말을 생각하고 용기를 낸다. 얼마 전에는 내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교장 선생님께서 보시고 있었던 분에게서 총 여섯 권으로 되어 있는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다. 그분은 살아 오시면서 늘 전라도와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분은 전라도 출신 인물들을 탐구해 보고자 결심하셨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 보면 그 시비를 가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교직 생활 정년 후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 규장각을 오가며 책과 씨름하고, 문증을 찾아가 자료를 모으고, 묘지(墓誌)와 문집을 다시 읽고 해석하여 집

필을 시작한 지 십여 년, 그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라도 출신 106인의 생애를 담은 이 책들을 출간한 것이다. 그분은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무슨 연구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관심과 사명감만으로 십여 년의 세월을 천착하여 전라도의 정신적 원류 혹은 학풍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인물사를 엮어낸 것이다.

해마다 삼월이면, 몇 명의 신입생들과 한 팀이 되어 한 학기를 보내는 학교의 프로그래머가 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신입생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를 먼저 묻는다. 신입생들은 꿈이 많다. 작가, 영화 감독, 외국인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다시 묻고, 그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권한다.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에서, 당장 바쁘지는 않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한 십 년 정도의 내용이 쌓인다면 인생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겠는가?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유권자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경선 갈등

6·2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민주당 내홍이 심상치 않다. 민주당 주류 측과 현역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는 공천 방식에 광주·전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유력한 3선 도전 후보였던 이성용 광양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소속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개혁공천을 꾀해서다. 선거 때면 끊이지 않는 공천 장사 논란과 불공정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공천이 임박해지면서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과의 불리한 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내 갈등을 지켜보는 지역민들

은 착잡한 심정이다.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고 지방선거 공천이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공천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는 커녕 당내 주도권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물론 정당 공천제는 장단점이 있다. 여성이나 신인의 진출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중앙정치에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이다. 각종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일꾼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바다 민심 대신 중앙정치권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서는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정치에의 연속에서 벗어나야 착근할 수 있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유권자가 배제된다면 올바른 자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교육비리 근절 못하면 지역교육 희망 없다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상반기부터 1년간 전국의 각 교육청을 찾은 민원인 2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교육청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민원인 200명 중 2명이 1년간 담당 공무원에게 3.5차례에 걸쳐 평균 45만800원의 금품과 40만5천원의 향응을 배운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교육청은 1명이 평균 2차례에 걸쳐 67만6천400원의 금품과 22만7천500원의 향응을 배풀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조사대상 13개 시·군·구 교육청 가운데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은 곳은 단 1곳 없었다. 이중 되면 지역교육청에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뇌물 관행은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 부실 자재 납품으로 이어진다. 납품

금액이 과다 책정되거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교육자로서 양심을 내동댕이친 채 학교를 대상으로 '몰염치한 돈 장사'를 한 것이다.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직 장사'는 과연 서울에만 국한된 일일까. 지역 교육계의 교직원사 관련 비리도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전교조 설문조사에서 평균 10명 중 7명이 교육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대답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계 어느 한 곳 비리로 얼룩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계가 이렇게 부패해서는 지역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차제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든, '비리를 저지르면 끝장'이라는 엄한 처벌을 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이근정 대한 권리, 즉 '친권'은 유지되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아버지란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와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인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친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은 검사에게 수사기관으로서 성폭력 가해자를 기소하여 형사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주는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기고 정기주 콜센터 유치 경제적 효과는 수도권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이전에 따른 각종 고용보조금, 시설 보조금, 교육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금들과 함께 지방 이전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국적인, 특히 수도권 콜센터 전문가 또는 CEO 네트워킹의 구축과 유지와 지역 이전 콜센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및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치를 따른 노력과 비용보다 오래 설득처럼 지역경제에 주는 경제적 및 고용창출 효과가 현저히 크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콜센터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짐승'에겐 親父의 권리 없다 후 다시 성폭행하여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단 피해자가 아동인 성폭력 범죄 발생하면, 각 검찰청마다 설치된 아동 전용 조사실에서 아동 전담검사의 지휘 아래 피해 아동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16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조사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 녹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가 능한 한 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부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피해 기간이 장기(長期)이며, 아이가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인 단원인 가정이 가장 극악한 범죄의 현상이 되므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의 법제로는 피의자가 유죄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출생과 동시에 연결된 친자에 대한 권리, 즉 '친권'은 유지되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아버지란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와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인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친권을 제한하기 위해 법은 검사에게 수사기관으로서 성폭력 가해자를 기소하여 형사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인 가해자의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주는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우리는 먼 나라가 아니라,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상반기부터 1년간 전국의 각 교육청을 찾은 민원인 2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교육청에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민원인 200명 중 2명이 1년간 담당 공무원에게 3.5차례에 걸쳐 평균 45만800원의 금품과 40만5천원의 향응을 배운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교육청은 1명이 평균 2차례에 걸쳐 67만6천400원의 금품과 22만7천500원의 향응을 배풀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조사대상 13개 시·군·구 교육청 가운데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은 곳은 단 1곳 없었다. 이중 되면 지역교육청에 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뇌물 관행은 예산 낭비나 부실 공사, 부실 자재 납품으로 이어진다. 납품

無等鼓 네티(NEET)족 우리나라에는 네티족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없다.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구직단념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과도 구별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층을 43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 수는 2004년 33만명에서 5년 새 30%나 증가했다. 고용환경이 악화돼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네티족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이 없는 네티족은 소비 능력이 떨어져 잠재성장력과 노동력은 물론 국내총생산에 저하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갖가지 사회불안과 사회병리현상을 유발할 우려도 높다. 무기력증에 빠진 '현대판 젊은 한량'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이해하기 어려운 한우 등급 단순화 했으면 며칠 전 마트에 가서 한우고기를 사다가 한우를 나누는 등급이 너무 헷갈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저 한우 1등급이 최고로 좋은 건 잘 알았는데 그 등급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어려워니 정말 이게 당장 개선돼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트 판매담당 직원에게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1등급이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도 등급체계상 1++가 제일 좋은 등급이고, 그 다음이 1+, 또 그 다음이 1등급이라고 더 세분화해서 알려줬다. 쇠고기 판매 코너에 표기돼 있는 암호 같은 등급표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고기도 서로간에 등급 체계가 다르고 표시법도 제각각이다. 한우의 육질등급은 지방의 양,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과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같은 걸 종합 평가해서 1++, 1+, 1, 2, 3, 등급의 등 6단계로 나눈다고 한다. 또한, 육질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심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B, C, 등의(D)로 나뉜다. 이렇게 복잡하고 종류가 많을수록 등급 방식을 아주 단순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이현·광주시 북구 연제동

늘어가는 '황혼이혼' 대책 세워야 며칠 전 우리 법사 사무실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다. 할머니의 연세는 72세 쯤인데 할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몰라서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단호하고도 짧게 "더 이상 맞아 가며 무시당하며 살기 싫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결혼 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시시때때로 맞았는데 그동안은 자식들이 결혼할 때 예미 예비가 이혼했다는 말 들을까봐 참았지만 얼마 전 막내 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결혼들이 없어 당장 이혼할 거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폭력을 건립 함도 없고 할아버지 하나 노릇 하며 살기도 싫다고 하셨다. 우리가 노인 취업문제, 청소년 문제 등에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노년층의 이혼, 그리고 그 이혼의 원인이 되는 노년층 가정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지낸 건 아닌지 국가 사회적으로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젊은층의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 숙려제에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황혼이혼과 그 원인이 되는 노년층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금 되짚어 보고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김민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dvertising, and circulation.